

영상 메시지

너 ,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절입니다. 그러기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,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불자들이 보시바라미를 수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

그런 의미에서 불교포럼과 아름다운 동행, 그리고 불교방송이 원력을 가지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

우리 불교는 비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 혼자 많이 가지기 보다는 서로 나누어 가지는 사회가치를 만들어 가면서,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

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가꾸는 일에 불자들이 적극 나선다면 우리사회는 행복과 평화로 가득할 것입니다.

이번 행사가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불자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원만성취로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.